

# 한 번역가의 사전 열어보기

롱맨·콜린스·두텐 등 유용... 구어·속어·최신어 사전도 중요

이희재  
번역가

지금 내가 쓰는 영어 사전은 중사전으로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제3판(1992), 대사전으로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Usage》 제2판(1897)과 《금성 영한대사전》 제1판(1992)이 있다. 사전을 찾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동아 프라임 사전》을 찾는다(요즘은 CD롬을 노트북에 깔아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금성 대사전》을 뒤진다.

얼마전 번역을 하다가 null hypothesis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금성 대사전을 찾아보았다. “귀무가설(歸無假說): 표본조사에 의해 버려질 것이 기대되는 가설”이라는 뜻풀이가 달려 있었다. 알 듯 말 듯했다. Random House 사전을 보았다. “검증되어야 할 가설”이라는 뜻풀이와 함께 alternative hypothesis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었다. 찾아보니 alternative hypothesis는 “귀무가설이 부정되었을 때 수용되는 가설”이었다. null hypothesis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금성 대사전에 안 나온 단어가 Random House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 문화저변에 깔린 어휘까지 소개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전은 Longman에서 나온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다.

가령 Doolittle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하자. 이것은 어떤 인명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온다. 그런데 이 사전에는 나온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영어권의 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어휘들을 소개하는 사전이기 때문이다. Doolittle은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또 하나 특징 있는 사전이 Collins에서 나온 《English Language Dictionary》다. 수록된 어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개념의 정확한 설명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령 당신이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명징하게 풀이하니 머리에 쑥쑥 들어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 나온 이 사전의 개정판은 번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입해야 할 사전이라고

## ‘롱맨’에서 나온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들에게 문화저변에 깔린 어휘까지 소개하고 있어 유용하다.

또 살아 있는 최신어를 개정판마다 성의있게 실어 놓는 사전도 고맙다.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어휘 속에 젖어 있을 때, 삶의 바닥에 잠수했다가 의연히 솟아오른 듯한 뛰어난 작가들의 글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전이다.

생각한다. 큰 사전을 뒤져도 좀처럼 안 나오는 snail mail(굴뚝이 우편: 컴퓨터 사용자들이 기존의 통신 수단을 꼬집는 말), political correctness(좌파의 정치적 결벽주의) 같은 살아 있는 최신어들이 대폭 실려 있다.

역시 Collins에서 나온 《Phrasal Verb》(동사구) 사전도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개인적으로는 동사구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수의 동사와 전치사 혹은 부사의 결합에서 끝없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개별 단어보다 의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나 싶다. 설마 만나와 있겠지 하고 한번 뒤져 보았다가 막혔던 동사구가 그 사전에 정확히 풀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많았다.

구어와 속어는 가장 기죽게 만드는 단어군이다. 그러나 구어와 속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텍스트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사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NTC사의 《Dictionary of American Slang》을 애용하는 편이지만, 역시 한계를 느낀다. 그렇다고 빠르게 변하는 구어를 따라잡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편도 아니어서, 요즘은 가급적 사실성과 논리성이 중심축에 놓인 인문과학과 자



살아 있는 최신어를 개정판마다 실어 놓는 사전이나 구어와 속어, 동사구 사전은 번역에 유용하다.

연과학의 텍스트로 나의 영역을 응집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장악하는 것인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구어가 속출하는 현대소설보다는 사실성에 기반을 둔 과학 텍스트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프랑스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서 번역의 문제점은 오역의 문제 이전에 텍스트 장악력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독일어 번역 수준의 열쇠

대학원에서 독문학을 전공했으므로 독일어 사전에도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어 번역이 발전하지 못한 일차적 원인은 사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뜻풀이야 사실 《DUDEN》 사전을 보면 된다. 《DUDEN》에 안 나오는 단어는 《Brockhaus》나 《Wahrig》에서 찾을 수도 있다. 번역을 할 때 자주 사전을 찾는 것은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좋은 우리말 표현과 만나고 싶다는 희망 때문이다.

얼마전 삼화출판사에서 새로운 독한사전이나 와서 상황은 크게 호전되었지만, 일말의 아쉬움은 남는다. 같은 출판사에서 이미 나온 불한사전과 비교하면 어휘 설명이 다소 투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뜻풀이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불한사전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영어 번역을 하다가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을 때 영불사전에서 그에 걸맞는 불어 단어를 뒤진 다음 그것을 다시 불한사전에서 찾아 독특히 재미를 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뜻풀이에 정성이 스며들어 있다.

다른 분야의 사전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독한사전은 영어권에서 만든 독영사전에서 참고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감탄한 독영사전은 Langenscheidt에서 나온 포켓판 독영/영독 사전이었다. 어휘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내가 막혔던 단어를 어찌면 그렇게 족집게처럼 집어 다놓았는지 신기했다.

그래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독영 대사전을 구입했다. 관용적 표현의 자세한 풀이 면에서는 이 사전이 《DUDEN》 사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ngaben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차이트》지를 읽다가 부딪친 단어였는데 진술, 보고 등의 막연한 뜻은 알고 있었지만 이 문장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풀이하면 어색했다. 《DUDEN》을 보아도 두루뭉수리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Langenscheidt를 보니 굵은 글씨로 ‘데이터’라고 풀이되어 있었다. 그리

# 해방 직후 남한사회의 이해

《식민지 조선에서》《1945년 남한에서》를 읽고

김학준 · 단국대 이사장

고 관련 표현들이 수두룩히 실려 있었다.

얼마 전에 나온 삼화출판사의 독한사전에는 그런 뜻이 나와 있지 않다. 더욱 놀란 것은 내가 심심풀이삼아 구입한 Bantam사의 포켓 영독/독영 사전에도 '데이터'라는 뜻이 가장 굵은 글씨로 설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무권으로 된 《옥스퍼드 대영어사전》도 어차피 한 단어의 뜻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 좋은 사전은 한정된 지면 안에서 그 단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핵심적인 뜻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 뛰어난 작가의 글로 충전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갖고 싶은 사전은 우리말 유의어 사전이다. 영어, 불어, 독어에는 《Thesaurus》라는 이름의 두툼한 유의어 사전이 있다. 번역가에게만 요긴하지는 않을 것이다. 방대한 어휘가 수록된 유의어 사전이 있다면 표현 구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대동소이한 내용의 대규모 국어사전 제작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유의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 문화적으로 훨씬 값진 일이라 여겨지는 데 무척 안타깝다.

번역도 며칠만 게으름을 부리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번역을 열심히 해도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어휘만 남발된다. 생각을 깊이 해도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멀리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답보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김수영의 산문, 김종삼의 시, 김원일의 소설, 최인훈의 단편과 희곡을 읽는다. 삶의 바닥으로 깊이 잠수했다가 의연히 솟아오른 말과 문체에서 충전을 받는다. 그리고 머리속의 구질구질한 때가 말끔히 가시는 듯한 착각에 젖는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전은 실은 이 뛰어난 작가들의 글인지도 모른다. 번역가에게 미래는 없지만, 가끔씩 해저에서 솟아오른 모국어의 낚싯대로 외국어를 낚는 순간만큼 보람을 느낀다. 미래의 컴퓨터 번역가도 그런 보람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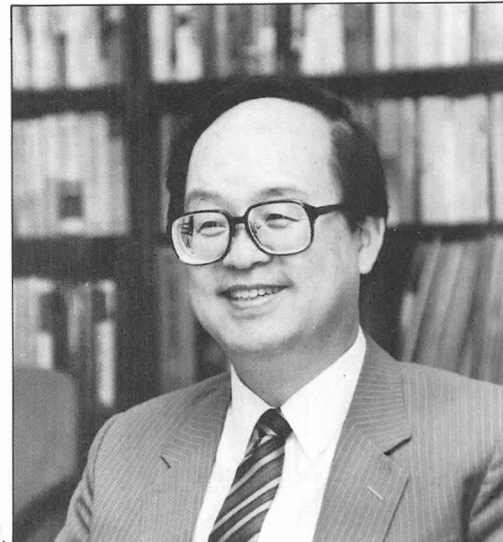
이 두 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은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앞서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책의 값어치는 지은이의 경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일제 치하 때 서울에 상주했던 소련 총영사관의 부영사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1년 가까운 기간 서울에 여전히 상주했던 소련 총영사관의 부영사였던 아나톨리아노비치 샤프신의 부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소련 청년공산동맹의 기관지인 '꿈소몰스까야 뿌라브다'의 서울 통신원이었고 때로는 소련 총영사관의 도서실장이기도 했다.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에, 지은이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해방 정국의 남한 상황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지은이의 남다른 탐구욕과 높은 분석력이 가미되어, 그녀의 관찰은 학술적으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와 《1945년 남한에서》라는 두 책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두 시기의 조선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주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두었다. 식민지 조선의 실상, 그리고 조선의 민족 해방

서울에 상주했던 소련 총영사관의 부인인 저자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해방 정국의 남한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시각에서 본 해방정국은 기존의 일방적 시각을 교정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김학준씨.

투쟁이 공산주의적 시각을 통해 묘사되어 있다. 그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썼기에 1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하겠다. 더구나 지은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이 개방과 개혁을 추구하던 시기에 이 책을 썼기에 훨씬 더 자유스럽게 자료를 처리할 수 있었다.

《1945년 남한에서》는 필자의 안목으로는 앞의 책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의 남한 상황을,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비록 공산주의적 시각과 소련

의 시각에서이지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 방면에 부족했던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수정주의적 시각의 연구들이 소개되기 이전의 한국 학계는 해방 정국을 친미 반소의 시각 하나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다. 그래서 해방 정국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

수정주의적 시각의 도입은, 수정주의적 시각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념적 한계성 때문에 비판된 부분들이 적지 않으나, 기존의 일방적 시각을 교정시키는 데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1945년 남한에서》는 분명히 좌파적 시각이며 수정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해방 3년사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해방 직후의 몇달 동안 남한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정하게 이바지했다.

번역자는 러시아어에 정통하고 러시아의 명문 대학들에서 같이 공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러시아 전문가이다. 이러한 번역자에 의한 번역이어서 이 두 책은 그 진가를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

파나 이사악코브나 샤프쉬나 지음/김명호 옮김  
한울/A5신/각406.286면/각10.000원, 8000원

